

## 넥스트바이오메디컬, 기술성 평가 통과 “코스닥 상장 본격화”

- ▶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A·A 등급으로 기술성 평가 통과
- ▶ 코스닥 상장 본격화를 위해 연내 예비심사 청구 예정

<2023-09-04>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.

혁신형 치료제 개발 및 수출하는 (주)넥스트바이오메디컬(대표이사 이돈행, 이하 넥스트바이오)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. 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전문평가기관인 이크레더블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각 ‘A·A 등급’을 받아 회사의 핵심 기술력과 사업성, 사업화 역량 및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인정받았다.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오는 4분기 중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를 할 계획이다.

회사 관계자는 "이번 기술성 평가를 통해 우리의 높은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며, 앞으로 코스닥 상장을 통해 국내외에서 더욱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칠 것"이라고 전했다.

회사의 주력 제품인 내시경용 지혈재 'Nexpowder™'는 이미 세계 최대 의료기기 회사 Medtronic 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다. 더불어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.

그 외에도 최근 'Game changer(게임체인저)'로 대두되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 색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'Nexsphere™-F'라는 세계 최초의 속분해성 관절염 통증 치료 혈관 색전재를 개발하였고, 이에 대한 한국과 유럽 인증을 이미 획득했다. 해당 제품의 추가적인 임상 근거 확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시판 후 임상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. 향후, 넥스트바이오는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'Standard-of-Care(표준치료)' 등재 및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해외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.

이에 대해 넥스트바이오 이돈행 대표이사는 "현재 회사는 글로벌 기업과 주력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판권 논의 진행 및 차세대 제품 개발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 중"이라며 "이번 상장을 통해 추가 임상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 비용 및 해외 수출 증대로 인한 시설 증설에 투자할 것"이라고 밝혔다.